

성삼 후 16주일 (연중 24주일) 감사성찬례

집전 / 설교: 최용준 바우로 신부 보혈조력: 정스테반
지휘: 이유니스 반주: 정모니카 선창: 김니콜라

개회예식

†입당성가 247장 다 함 께
†정심(淨心)기도 6쪽 집 전 자
†죄의고백 6쪽 다 함 께
†기원송가 거룩하신 하느님 (9쪽) 다 함 께

말씀의 전례

†본 기도 집 전 자
자비하신 하느님, 구하오니, 우리를 도우시어 서로 용서하며, 어떤 처지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1독서 이사 50:4-9 말 은 이
성 시 시편 116편 다 함 께



- 1 주님은 나의 사랑,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 주셨다.
○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귀를 기 | 울여 | 주셨 | 다.
2 죽음의 끈아풀이 나를 두르고, 저승의 사슬이 나를 | 묶 | 어
○ 불안과 슬픔이 나를 | 덮쳐 | 누를 | 때,
3 나는 주 이름 부르며 부르 | 짓었 | 다.
○ "주여, 구하옵나니, 이 목숨 | 살려 | 주소 | 서."
4 주께서는 너그럽고 의로 | 우신 | 분,
○ 우리 하느님은 | 자비 | 하신 | 분,
5 미약한 자를 지켜주시는 주님 | 이시 | 라.
○ 가엾던 이 몸을 | 구해 | 주셨 | 다.
6 주께서 너를 너그럽게 대하 | 셧으 | 니
○ 내 영혼아, 너 이제 평 | 안히 | 쉬어 | 라.
● 영광이 | 성부와 ○ 성자와 | 성령 | 께
처음과 같이 | 지금도 ○ 그리고 영원히, | 아- | 멘

2독서 야고 3:1-12 말 은 이
†복음환호송 말 은 이
†복음서 마르 8:27-38 말 은 이

설교 바우로 신부
니케아신경 16쪽 다 함 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말 은 이

성찬의 전례

†평화의 인사 22쪽 다 함 께
†봉헌성가 515장 다 함 께
성찬기도 23쪽 1 양 식
거룩하시다 102쪽(C곡) 다 함 께
주의기도 28쪽 다 함 께
성체나눔 29쪽 다 함 께
하느님의 어린양 ... 105쪽(C곡) 다 함 께
성체성가 590장 성 가 대
†영성체후기도 41쪽 다 함 께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소식 신 자 회 장

파송예식

†축복기도 42쪽 집 전 자
†파송성가 481장 다 함 께
(†는 일어섬)

	이번 주일(9월 15일)	다음 주일(9월 22일)
1독서	윤희진	백남진
2독서	유정훈	박선희
대 도	김운권	정연창
다음주일 전례독서	예레 11:18-20 시편 54 야고 3:13-4:3, 7-8상 마르 9:30-37	
성 가	272 580 403 365	
복 사	이동우 이서현	보혈조력 정요셉
다음주간 교회청소	<6조> 최용욱 윤희진 허예영 동소신	

(1997-2024 / 교회설립 27주년)



성공회 산본교회

St. Clare's Anglican Church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21, 청진빌딩 7층 ☎ 031-397-0443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

2024년 9월 15일 성삼 후 16주일 (연중 24주일) · 나해 · 녹색

제28-37호

반복된 수난과 부활 예고



오늘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수난과 부활 예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수난과 부활 예고를 반복하시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사건이 그저 우연한 상황 전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백한 결단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난과 부활이 있으리라는 예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수난을 이미 감당하시기로 각오하시고 피하지 않으셨다는 예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이 십자가에서 끝날지라도 결코 성부 하느님께 대한 순종과 신뢰를 포기하지 않겠노라는 그 다짐이 더욱 고귀합니다. 둘째, 거듭된 수난과 부활 예고는 하느님이 어떤 분 이신지, 하느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난 예고는 장차 기적적인 부활이 있을 터이니 걱정 말고 기대하고 있으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런 메시지를 아직 못 들었기에 예수님을 불신했다가 그런 메시지를 듣고 안심하게 되었다면 좀 이상한 일이 되겠지요. 수난 예고의 목적은 바로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인지, 곧 하느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가르치려는 데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되는 그 예수님께서 권력과 힘으로 내리 누르는 다스림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통한 섬김"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를 몸소 보여주신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데에 수난 예고의 본 뜻이 담겨 있습니다.

교구장 이경호(베드로) 주교 / 관할사제 최용준(바우로) 신부
신자회장 최용욱(어거스틴) / 사제회장 김운권(베네딕트) / 원로회장 한명숙(율리아나)

성 십자가의 날 (9월 14일)

십자가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에 우뚝 선 역사의 현실과 신학이며, 오늘 우리 삶의 이정표입니다. 십자가 축일은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 사건을 십자가를 통해 기억하는 날입니다. 십자가라는 죽음의 도구가 어떻게 용서와 화해를 마련하는 구원의 도구로 변했는지 되새기는 날입니다. 십자가의 역사와 신학을 잊을 때 그리스도교 신앙도 변질한다는 사실은 경고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폭력과 죽음의 상징을 용서와 화해, 생명의 상징으로 바꿉니다. 역사의 현실에서 거둬지던 폭력과 죽음의 악순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멈춥니다.

이 지점에서 죽은 십자나무가 생명을 품은 십자나무가 되어서 세상의 생명을 위한 열매를 맺습니다.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걸려 있네.” 여기서 새로운 삶의 길을 발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 행렬에 참여하여 기꺼이 세사의 질서에 거슬러 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제국의 국교가 된 그리스도교에서 십자가는 그 참혹한 역사를 잊고, 종교적 의미만 남긴 십자가 신학으로 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육신하여 역사를 사셨던 예수님을 잊거나 그분의 고통과 죽음이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신앙과 신학은 제대로 서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한 개인의 내면적 종교심과 신심을 위한 방편으로 전락하면 중세 교회의 폐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교회와 예배당 안팎, 장신구나 기도 묵주의 십자가에서 여전히 ‘타인’의 아픔과 눈물과 피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리스도교 신앙은 멈춥니다. 그러니 십자가 축일에 우리는 다시 사도 바울로 성인의 고백을 되뇌며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갈라 6:14)

이번 주간 외울 말씀 16

당신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시편 119편 105절)



교회소식

전례와 사목

창조절기 안내

9월 1일(주일)~10월 4일(프란시스 축일)
세계성공회가 함께 창조절기로 지킵니다.

추석 명절 추모성찬례 안내

9월 17일(화) 오전 9시 / 성전
가족과 함께 오셔서 추석 추모성찬례를 드리고,
기쁜 명절을 하느님께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알림

교회위원 선거 일정

2024-2026 교회위원 선거 일정 공고

교회위원 사전 투표	9월 20일(금)~22일(주)
교회위원 선거	9월 29일(주일)
신자회장 선거	9월 29일(주일)
교회위원 당선인 선서	10월 6일(주일)

* 게시판과 전례단톡방에 실린 교회위원 후보자 (피선거권자)명단을 살펴보고, 우리 교회의 사목과 선교를 위해 헌신할 분을 선출하여 주십시오.

* 9월 29일에 교회위원 선거가 진행되고, 당일에 신자회장 선출을 위한 신자총회가 열립니다. 교우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활동단체장 선출 (유임)

아버지회장 정연창 요셉 어머니회장 홍양금 레지나
성가대장 이숙영 안나 교회학교장 박선희 휘데스
청년회장 허훈제 프란시스

* 하느님의 일에 기쁘게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수요 성서공부

추석 연휴로 금주 수요일은 쉽니다.

서울교구 제7대 서울교구장 성품식 및 승좌식

9월 26일(목) 오후 2시 / 서울주교좌성당

제6대 교구장 이경호 베드로 주교 정년퇴임 감사예배

9월 29일(주일) 오후 4시 / 서울주교좌성당

교우 소식

생일을 축하합니다

기필순(17일) 안병순, 동소신(18일)

지난주일 봉헌 내역

■ **십일조 · 월정헌금** 1,120,000원
김준우/조장은 류한신/이민녀 백남진/박선희
이윤식/백옥경 최자연

■ **주일헌금** 250,000원
고미순 권순호 김승현 류한신 박종례 백옥경
이윤식 임혜지 장성환 장재현 장태현 채희영
최순덕 최용욱 최용준신부 황선숙

■ **주일학교** 유아운 유아현 2,000원

■ **감사헌금** 145,000원
고미순(추석) 김도환(범사) 류지만(범사)
유아현(생일) 이예빈(범사) 조준행신부(건강)
최하현(학교 생활)

■ **특별헌금** 260,000원
김운권/홍양금(아론기금) 류한신(몽골숲)
조장은(미얀마 반달공부방) 조준행신부(몽골숲)

주간전례독서 (9월 16일~21일 / 연중 24주간)

	독서	복음
16일(월)	1고린 11:17-26, 33	루가 7:1-10
17일(화)	1요한 3:17-18	마태 25:34-40
18일(수)	1고린 3:5-11	요한 4:31-38
19일(목)	1고린 15:1-11	루가 7:36-50
20일(금)	2고린 6:6-10	마태 8:18-22
21일(토)	1베드 4:7-11	마태 16:24-27

※ 기도해 주세요 ※

우리교회를 기억하며

- 주일을 잘 지키는 신앙공동체 (예배하는 사람)
-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고3 수험생을 위하여

이동우 미카엘

어려운 교우와 환우 교우를 위하여

강영욱 권영분 기필순 김길자 김승숙 김옥현
박종례 박순호 안병순 임광호 이성중 이연학
유근상 유정환 조준행 신부 정시원 채희발 한명숙

해외 체류

김보미 조민규 조이준 방유미 이형석 디아나
이주안 임인택